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박주영¹, 우정희^{1*}, 김주은¹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Ju-Young Park¹, Chung-Hee Woo^{1*}, Ju-Eun Kim¹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그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4학년 126명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의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Pe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은 자아존중감($r=.160$, $p=.037$)과 자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그릿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32$, $p=.009$). 이 연구를 통해 그릿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그릿(Grit),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무례함,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Abstract This study was tried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focusing on recent interest in grit. The study subjects were 126 juniors and seniors in a nursing colleg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2017 to June 8, 2017. Th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Pe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 The analyzed data showed that grit of the subjec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r=.160$, $p=.037$) and self-efficacy ($r=.232$, $p=.004$) And self-efficacy ($r=.541$,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ly the self-efficacy significantly predicted grit ($\beta=.232$, $p=.009$).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variables related to Grit, and it can be especially valuable for the direction of what education should be helpful to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Grit, Self-esteem, Self-efficacy, Incivility,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정부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시장 개방, 보호자 없는 병동정책 등 각종 의료관련 사업이 확충되고 있다. 이에 따

*Corresponding Author : Chung Hee Woo(createjane@konyang.ac.kr)

Received November 26,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November 26,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라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1]. 일반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 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2,000여명, 2015년에는 14,000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다[2]. 간호사의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각 대학에 간호학과 정원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 통계에 따르면 간호학과 국가고시 응시생이 2015년을 제외한 2013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매년 2,000명씩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필수 교육인 임상실습과 임상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이 그 필수적 과정이며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 진출하여 이론 때 학습했던 핵심기본간호술, 치료적인 의사소통술, 의료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보고 실천하게 된다. 또한 다른 직종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정자의 역할도 체험할 수 있다[3]. 이들이 실습하게 될 최적화된 임상실습 현장은 간호대학생들의 실습관련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론 때 배운 술기를 이행하는 임상수행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 결국 간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른 의료종사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간호전문직의 술기를 배우는 등의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와같은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끈기가 요구된다.

최근 학업적 끈기, 내재된 동기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성을 동반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Grit)[6]이라는 개념이 학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학습과 관련되어 초등학교 영재에서 성인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9]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황광원[11]은 인지적 능력에 못지않게 비인지적 능력이 중요하며 그릿은 비인지적 요소이면서 성취에 대한 높은 예측을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의 청년실업률이 높으면서도 간호계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교육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의 한 방안으로써 그릿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직접 지도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

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도 간호대학생들의 그릿을 길러주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사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학습하는 긍정적 요소이외에도 대상자나 보호자 혹은 같은 의료팀 내에서 무례함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실습 도중 많은 수의 간호대학생이 언어폭력을 경험하는데 그에 다른 대처방식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무례함은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위축과 과민반응을 보이게 할 수 있다[12]. 무례함은 임상실습의 주된 스트레스 중 하나이나 자신의 학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반복적인 무례함에 노출되면 이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13].

이러한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14] 이런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공 학과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예측 가능한 지표로 쓰이기도 하고[15],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확한 전문 술기가 요구되는 간호사에게도 중요하게 요구가 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전문술기의 수행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임상실습에 나가 간호술기를 직접 행하여 보는 간호대학생에게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할수록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저하된다[13]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란 자아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며 유능한지 스스로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16]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데[17], 여러 가지 임상실습의 스트레스에 놓여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 함양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에 있어 많은 학업과 임상실습을 지속시킬 끈기와 열정을 평가함에 있어 그릿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학업 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무례함이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릿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릿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융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분석한다.
- 3) 연구대상자의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4) 연구대상자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인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관련된 선행연구 [13]를 참고하고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수준의 효과 크기 0.15,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계산하였을

때 166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 180명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그릿의 측정도구는 Duckworth[6]가 개발한 그릿 측정도구를 이정림[8]이 번안한 그릿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노력지속성 8문항, 흥미일관성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문항은 12문항이다. 각 척도의 문항 형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림[8]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노력지속성 .86이며, 흥미일관성 .65이며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7이었다.

2.3.2 무례함

무례함의 측정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수옥 [18]이 개발한 것으로 하위영역은 배타적 행동 5문항, 멸시 5문항, 거부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의 문항 형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수옥[18]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배타적 행동(Exclusion) .77, 멸시 (Contempt) .79이며 거부(Refusal) .84이며 전체 신뢰도는 .8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1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와 Maddux[19]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2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정적인 진술문인 문항 2, 5, 6, 7, 10, 11, 12, 14, 16, 17, 18, 20, 22, 23은 역환산하여 계산을 한다. 김덕진[15]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일반적 효능감은 .86,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70,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이었다.

2.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1]가 개발하고 전병재[22]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 3,5,8,9,10은 역환산하여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전병재[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77이었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년,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사와의 관계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하였다(IRB No. 2017-019). 모집방법에서는 연구참여를 알리는 첫 공지를 교수자가 하게 될 경우 취약한 대상자인 학생은 동의하기의 자유로움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알 수 없게 진행을 도와 줄 연구보조자 석사생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작일에 사전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대상자에게 먼저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조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참여는 성적과 전혀 무관하며, 스스로 자율적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을 이용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간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 4)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방법(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자가 88.1%(111명)으로 남자 11.9%(15명)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최대 28세, 최소 20세로 평균 21.43±1.417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73.8%(93명) 4학년이 27.2%(33명)이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 57.9%(73명), 불만족인 경우 22.2%(28명), 만족인 경우 19.8%(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경우 45.2%(57명), 매우 좋은 경우 28.6%(36명), 보통인 경우 26.2%(33명)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50.0%(63명),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38.1%(48명), 좋지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11.9%(15명)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6

Variables	Categories or Range	n(%) or M±SD
Age	20-28	21.43±1.417
Grade	Junior	93(73.8)
	Senior	33(27.2)
Gender	Male	15(11.9)
	Female	111(88.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25(19.8)
	Fair	73(57.9)
	Poor	28(22.2)
Relationships with peer	Very Good	36(28.6)
	Good	57(45.2)
Relationships with clinical nurses	Fair	33(26.2)
	Good	48(38.1)
	Fair	63(50.0)
	Poor	15(11.9)

3.2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의 그릿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16(±.449)

점 이었고 하위영역 흥미일관성, 노력지속성의 평균은 2.756(±.631)점, 3.276(±.428)점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2.973(±.797)점 이었으며 하위영역 배타적행동, 멸시, 거부의 평균은 3.247(±.912)점, 3.048(±.870)점, 2.394(±.912)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98(±.329)점으로 하위영역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96(±.435)점, 3.285(±.632)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811(±.314)점 이었고 하위영역 긍정 존중감, 부정 존중감의 평균은 각각 3.150(±.479)점, 2.471(±.313)점 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126)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Grit		3.016±.4991	
	Consistency of interests	2.756±.631	1-5
	Persistence of effort	3.276±.428	
Incivility		2.973±.797	1-5
	Exclusion	3.247±.912	
	Contempt	3.048±.870	
	Refusal	2.394±.912	
Self-efficacy		3.298±.329	1-5
	General self-efficacy	3.296±.435	
	Social self-efficacy	3.285±.632	
Self-esteem		2.811±.314	1-4
	Positive esteem	3.150±.479	
	Negative esteem	2.417±.313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사와 관계(F=20.26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좋지 않은 경우(3.830±.532)가 보통(3.080±.679)인 경우보다, 보통(3.080±.679)인 경우가 좋은 경우(2.565±.761)보다 무례함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F=3.552, p=.032), 실습동료와의 관계(F=7.906, p=.001), 간호사와의 관계(F=3.151,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3.429±.418)가 불만족 하는 경우(3.128±.416) 보다,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3.522±.504)가 좋은 경우(3.224±.405)나 보통인 경우(3.175±.265)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t=2.442, p=.016), 학교생활 만족도(F=5.565, p=.005), 실습동료관계(F=13.2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2.944±.266)가 불만족 하는 경우(2.667±.332) 보다,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2.977±.278)가 좋은 경우(2.815±.322) 보다, 좋은 경우(2.815±.322)가 보통인 경우(2.621±.223)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26)

Variables	Categories	n(%)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Self-esteem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Gender	Male	15(11.9)	2.904±.402	.861	2.964±.954	.188	3.449±.429	.952	2.993±.221	2.442
	Female	111(88.1)	3.031±.454	(.304)	2.975±.779	(.960)	3.275±.426	(.142)	2.786±.317	(.016)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25(19.8)	3.090±.466		2.910±.741		3.429±.418		2.944±.266	5.565
	Fair	73(57.9)	3.017±.481	.651	2.921±.818	1.065	3.315±.422	(.032)	2.820±.303	(.005)
	Poor	28(22.2)	2.948±.335	(.523)	3.167±.789	(.348)	3.128±.416	a>c	2.667±.332	a>c
Relationships with peer	Very Good	36(28.6)	3.137±.511		2.993±.901	.701	3.522±.504	7.906	2.977±.278	13.299
	Good	57(45.2)	2.966±.371	1.849	2.890±.704	(.498)	3.224±.405	(.001)	2.815±.322	(<.001)
	Fair	33(26.2)	2.971±.487	(.162)	3.095±.838		3.175±.265	a>b,c	2.621±.223	a>b>c
Relationships with clinical nurses	Good	48(38.1)	3.089±.444		2.565±.761		3.411±.486		2.870±.318	
	Fair	63(50.0)	2.989±.486	1.305	3.080±.679	20.269	3.243±.383	3.151	2.781±.295	1.486
	Poor	15(11.9)	2.895±.229	(.275)	3.830±.532	c>b>a	3.152±.342	(.046)	2.746±.362	(.230)

3.4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자기존중감($r=.160, p=.037$)과 자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126)

	Self-efficacy	Incivility	Self-esteem
	r(<i>p</i>)		
Grit	.232 (.004)	-.057 (.529)	.160 (.037)
Self-efficacy	1	-.072 (.420)	.541 (<.001)
Incivility		1	-.090 (.317)

3.5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분산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고 Durbin-Watson 결과 1.914로 독립성을 만족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045, p=.009$),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 R2은 .046으로 4.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투입된 변인들 가운데 자기효능감만이 그릿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beta=.232, p=.009$)<Table 5>.

<Table 5> Factors related to Grit (N=126)

Variables	B	SD	β	t	<i>p</i>	VIF
(constant)	2.216	.304		7.288	.000	
Self-efficacy	.243	.091	.232	2.654	.009	1.000
$R^2=.054, \text{ Adjust } R^2=.046, F=7.045, p=.009$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릿과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연구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3.016점으로 하위영역 흥미일관성, 노력지속성의 평균은 2.756점, 3.2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상춘[9]의 연구에서 흥미일관성 3.24점, 노력지속성 3.37점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력지속성 부분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은 여러 시험, 과제 등에 직면했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스스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일관된 흥미를 느껴서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끈기와 노력으로 버티고 이를 잘해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형식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 스스로 일관된 흥미를 찾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간호학에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저학년부터 세부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을 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특히, 학교교육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간호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임상실습에서는 학교교육과 소통하는 교육적 환경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무례함은 5점 만점에 2.973점으로 무례함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며 3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종료한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수옥[18]의 연구결과 3.03점과 유사하다. 이는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무례한 대우를 중간 이상 정도로 느끼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대상자 앞에서 무안을 준다든지, 부적절한 어투를 사용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학생의 질문에 귀찮아하는 등의 행동이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교수자 및 임상실습 지도자는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습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언급하여 무례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298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며 3년제와 4년제 각 1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덕진[15]의 연구결과 3.33점으로 유사한 결과이며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경이[23]의 연구결과 3.3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과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타학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용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문항수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경민[24]의 연구에서는 2.8점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타학과에 비해서 많은 실습평가와 과제로 인해 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기회가 많고 이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둬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존중감은 2.811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며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문희[25]의 연구결과 3.07점, 황성자[26]의 연구결과 3.10점, 간호대학생 2,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7]의 연구결과 3.03점 보다 다소 낮았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점이 학기 중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말고사 직전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많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자기존중감이 낮게 측정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그릿은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별, 나이, 학교생활만족도, 간호사 및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그릿을 관련지어 진행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추후 그릿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대상자를 확장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사와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보다,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보다 무례함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한 이현정[2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에 있어 간호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주도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교육 담당자는 의도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학생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며 무시하는 행동과 같은 무례한 상황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29]을 임상실습 교육에 앞서 의식적인 사전 인식교육이 임상실습 현장 간호사에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생은 실습현장에서 무례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과목 담당교수, 병원 간호교육 담당자,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등에게 보고를 통하여 유기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간과하지 않고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보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투명한 제도 속에서 실습현장의 간호사와 학생 간 무례함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사와의 관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동료, 그리고 간호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덕진[15]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성취 경험 및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증진되며 원만한 관계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 학기 임상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실습동료, 실습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간호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고된 실습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판단과 기대를 하게 해주고 이는 임상실습 수행 능력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영숙[30], 김은주[3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이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간호학과 특성상 많은 동성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동료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전체를 3년 동안 종단 연구를 통하여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하나선[32]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며 2,3,4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가치를 느끼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있게 행동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21] 따라서 원만한 대학생활을 누리고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임상실습생활을 진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33], 자존감증진 인지행동프로그램[34]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인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대상의 박소연[35]의 연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 결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간호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사회적 현상인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학점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 실습동료들과 서로 임상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비교과 시간이 마련된다면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 원만한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그릿 도구로 측정한 한상춘[9]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는 어려운 일이 닦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데 망설임 없고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업적 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 또한 성취를 높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을 보일수록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릿을 활용한 연기고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윤정[36]의 연구도 이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그릿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었으며 학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힘을 키워주는 등의 효과를 주었다고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습과정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신념

과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스스로 믿는 정도가 커질수록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임상실습에서의 수행 또한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자신의 공부전략, 진로 계획, 실습에서의 조언 등에 대하여 교수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습상담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목표를 향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동기와 믿음을 부여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박현숙[27], 오혜경[37], 김명숙[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기대, 믿음을 높여 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임상실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학기 임상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39]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과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40] 임상실습 기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한상춘[9]의 연구결과 그릿이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beta = .411, p < 0.01$) 예측한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그릿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성취완성,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 각성의 이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41] 임상실습 교수자와 현장 지도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취경험을 쌓아주고 간호 관련 경험을 제공해주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설득을 하는 등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한 상황들을 줄이고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그리고 그릿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임상실습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연구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학년 126명이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사와 관계($F=20.26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F=3.552, p=.032$), 실습동료와의 관계($F=7.906, p=.001$), 간호사와의 관계($F=3.151,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존중감은 성별($t=2.442, p=.016$), 학교생활 만족도($F=5.565, p=.005$), 실습동료관계($F=13.2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릿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자아존중감($r=.160, p=.037$)과 자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그릿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32, p=.009$).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어 표집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릿은 최근에 정립된 개념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는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H. Oh.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November 8, 2010.
- [2] Korean Nurses Association, Number of professional nurses, 2015,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 [3] S. H. Bae,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03-214, 2013.
- [4] J. A. Cha, "Correlation between for nursing students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5] S. Y. Kim, S. Y. Lim, H. 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4, pp. 59-64, 2015.
- [6]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 [7] Fillmore, E. P., "Grit and beliefs about intelligence: The relationship and role these factors play in the self-regulatory processes involved in medical students learning gross anat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2015.
- [8] L. J. Lim,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16.
- [9] S. C. Ha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7.
- [10] Y. S. No,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5.

- [11] K. W. Hwang, "A Study on Application of Grit to Character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12] S. Y. Kim, "Effect of Incivility Experienced Clinical Nurses on Job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15.
- [13] M. K. Jeon, J. W. Oh,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39-346, 2017.
- [14] Y. K. Oh,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5.
- [15]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 [16] Y. M. Ryu,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 [17] S. 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9, pp. 286-296, 2016.
- [18] S. O. Jo, J. N. O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Tool to Measur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537-548, 2016.
- [19] Sherer, M., Maddux, J., Merca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No. 2, pp. 663-671, 1982.
- [20]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21]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The Southwester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47, No. 1, pp 91-92, 1966.
- [22] B. J. Jun,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9-129, 1974.
- [23] K. A. Lee, "The Effect of Nurses' Self-Efficacy,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n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2015.
- [24] K. M. Lee, " An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behavior on satisfacion in Korea university fe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06.
- [25] M. H. Nam, M. R.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527-536, 2016.
- [26]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27] H. S. Park, Y. J. Bae, S. Y. Jeo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1, No. 4, pp. 621-631, 2002.
- [28]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 [29] J. G.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316-324, 2017.
- [30]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 [31] E. J. Kim, G. M. Kim, K. W. Choi, S. S. Kim, J. Y. Lim,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 21, No. 1, pp. 60-68, 2014.
- [32] N. S. Ha, J. Choi,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2, pp. 73-85, 2011.
- [33] G. H. Kim, K. H. Kim, "Effects of a Self-esteem Promotion Program o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among Female Freshmen."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8, No. 4, pp. 431-438, 2009.
- [34] H. J. Joo, K. M. Cho,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 by Improving Self-esteem on the

Problem-solving Ability,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4, No. 3, pp. 260-267, 2005.

- [35] S. Y. Park, J. K. Kim, T. Y. Le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2, pp. 376-384, 2011.
- [36] Y. J. Yi, “Education of acting program using GRIT and program analysis e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6.
- [37] H. K. Oh,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5, No. 2, pp. 278-286, 2003.
- [38]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59-167, 2011.
- [39] S. H. Le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4, pp. 539-547, 2008.
- [40] Bandura, A., & Sc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pp. 586-598, 1981.
- [41]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77.

박 주 영(Park, Ju Young)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재난 및 IT 융합간호, 응급간호, 간호교육

▪ E-Mail : jypark@konyang.ac.kr

우 정 희(Woo, Chung Hee)

[정회원]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지역사회, 연구방법론

▪ E-Mail : createjane@konyang.ac.kr

김 주 은(Kim, Ju Eun)

[학생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학생
- 관심분야 : 재난 및 IT 융합간호, 간호교육
- E-Mail : teddy0603@naver.com